

# “아이들의 꿈과 희망위해 함께 뛰어요”

## 광주 양궁의 미래 초등 양궁부 탐방

### 유춘초 여자 양궁부

광주 양궁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용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주현정, 2012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 등 세계적인 스타들을 배출하며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광주 양궁이 눈부신 성과의 밑바탕에는 초·중·고·대학·실업팀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연계육성 시스템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이에 본보는 광주 양궁의 미래인 초등 학교 양궁부를 찾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지도자와 꿈나무 선수들의 열정을 지면에 소개한다. /편집자 주



15년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이어온 유춘초 양궁부는 광주 양궁의 꿈나무 산실로 명성이 높다. 왼쪽부터 신수강 교장, 신서현, 강도연, 지보현, 송하린, 전호진, 이송미 지도자, 안유정 교감이 학교 교정에서 소년체전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남다른 열정·관심...최강 광주 양궁 연계육성 선봉자 양궁 꿈나무 발굴·육성...스포츠를 통한 바른 인성 함양 집중력 강화·스트레스 해소, 다양한 양궁 프로그램 운영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2017년 이 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신수강 교장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 철학으로 '무한상상실' 등 교내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저마다의 다양한 소질 개발에 힘쓰고 있다.

신 교장은 "인성인", '실력인', '재능인', '건강인' 양성이라는 학교 교육 방향에 맞춰 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특히 감성과 재능을 살려 꿈을 가꾸는 학생이라는 '재능인' 양성 취지에 맞게 운동부 아이들이 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스포츠를 통한 바른 인성 함양으로 우리 사회 주역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을 다해 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즐겁게 운동하다보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고, 소질 있는 선수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한다는 게 신교장의 소신이다.

특히 신 교장은 양궁이 집중력 향상은 물론 학업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양궁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아이들이 답답한 교내 운동장을 떠나 탁 트인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다양한 야외 스포츠 체험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신 교장은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마음 편하게 선수 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

에 열정을 쏟고 있다.

이처럼 학교 측의 꾸준한 관심 속에 유춘초 양궁부는 매일 방과 후 3시간씩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기량을 키워가고 있다.

이송미 지도자는 "초등학생들이 다 보니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탄탄한 기초체력과 안정적인 자세 교정이다. 흥미를 잃지 않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힘든 훈련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목표를 달성한 후 성취감을 느낄 때 지도자로서의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같은 훈련 결과 6학년 지보현양이 오는 24일부터 전북 익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 광주대표 선발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신 교장은 "아이들이 흘린 땀만큼 전국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며 "교사·학생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유춘초 양궁부가 '광주 양궁'을 대표하는 꿈나무 산실로 자리매김해 훌륭한 전통과 명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희중 기자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6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2019 광주시 야구소프트볼회장기 중학 야구대회 시상식 후 지역 야구 육성학교에 야구용품을 기증했다. /광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 무등중, 협회장기 중학야구 우승

### 이준혁 최우수선수 선정...육성학교에 야구용품 전달

무등중이 2019년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기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무등중은 지난 14-16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첫경기에서 진흥중을 1대4(5회·7점 콜드게임)로 꺾고 순조롭게 출발했다.

이어 동성중까지 12대3으로 제압하며 2연승을 기록했다.

우승이 결정되는 마지막 날 총장중에 0대1로 패했지만 최소실점에서 앞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우승팀인 총장중을 포함한 4개 야구팀이 참가해 리그전으로 진행됐다.

대회 최우수선수는 무등중 이준혁이 선정됐고, 무등중 류승민과 진흥중 김호성은 각각 우수투수상과 타격상을 수상했다.

한편, 시상식이 끝난 후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나훈)에서는 2013년부터 진행해 온 지역 야구 육성학교에 야구용품(3천만원 상당)을 기증하는 뜻 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박희중 기자



한화 소속 김지현이 19일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KLPGA 제공

## 3년전 준우승 설욕...김지현 '매치퀸'

### '여제' 박인비·상금 3위 조정민 넘어 결승서 김현수 6홀차 제압

한화 소속 김지현(28)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총상금 7억원) 우승을 차지했다.

김지현은 19일 강원도 춘천 라데나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결승에서 김현수(27)를 6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우승했다.

지난해 4월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개인 통산 5승을 달성한 김지현은 우승 상금 1억7천500만 원을 받았다.

2016년 이 대회 결승에서 박성현(26)을 상대한 김지현은 당시 16번 홀까지 2홀을 앞서는 유리한 상황을 지키지 못

했다.

17, 18번 홀을 연달아 내주고 연장에 끌려들어 간 끝에 준우승, 분투를 삼켰던 김지현은 3년 만에 다시 오른 결승에서 드디어 '매치퀸'의 자리에 등극했다.

김지현은 이날 오전에 열린 준결승에서 이들과 나이가 모두 같은 롯데 소속 김지현(28)을 1홀 차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전날 16강에서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골프 여제' 박인비(31)를 물리치고 최대 고비를 넘긴 김지현은 이어 열린 8강에서도 상금 3위이자 올해 한 차례 우승이 있는 조정민(25)을 꺾는 등 험난한 대진을 이겨냈다. /연합뉴스

## KIA 총괄코치제 폐지 김민호 수석코치 임명



박흥식 감독 대행체제로 전환한 KIA 타이거즈가 팀 분위기를 쇄신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KIA는 지난 17일 총괄 코치 제도를 폐지하고, 김민호 야수 총괄코치를 수석코치로 임명했다.

이어 1군에 있던 강상수 투수 총괄코치와 이대진 투수 코치, 코우호 타격코치가 퓨처스로 이동하고, 퓨처스에 있던 정성훈 타격 코치와 앤서니 르루 코치가 1군으로 자리를 옮겼다.

1군은 박흥식 감독 대행을 중심으로 김민호 수석코치, 홍세완·정성훈 타격코치, 서재용·앤서니 투수 코치, 김종국 주루·작전 코치, 김민우 수비코치, 김성훈 배터리 코치로 구성된다.

감독 대행 임명으로 공석이 된 퓨처스 사령탑은 장태수 코디네이터가 총괄코치 신분으로 팀을 지휘한다.

## 18기 챔피언십 투어 참가자 모집 25일 kt戰...선착순 30명

KIA 타이거즈가 '광주-기아 챔피언십 필드투어' 18기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팬 만족 프로그램 중 하나인 광주-기아 챔피언십 필드 투어는 경기장 및 선수단 시설 곳곳과 광주-기아 타이거즈 야구 역사관을 둘러본 뒤 경기까지 관람할 수 있는 상품이다. 오는 25일 KT전에 맞춰 각각 진행된다.

멤버십 성인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의 참가비는 3만원이다. 참가자 모집은 20일 오후 3시부터 각각 티켓링크를 통해 진행되며 선착순 30명. (문의 070-7686-8043) /박희중 기자



19일 광주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2019 광주오픈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단식 우승을 차지한 제이슨 정이 광주시테니스협회 임원진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회 홍보대사 이창훈, 강철성 광주시테니스협회장, 제이슨 정, 김유지 광주시테니스협회 고문, 김영옥 광주시테니스협회 부회장. /광주시테니스협회 제공

## 제이슨 정, 광주오픈챌린저 단식 우승

### 지난해 복식 챔피언 남지성·송민규, 아쉬운 준우승

제이슨 정(대만·세계랭킹 129위)이 두디 셀라(이스라엘·240위)를 꺾고 2019 광주오픈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제이슨 정은 19일 광주 진원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 단식 결승전에서 두디 셀라를 세트 스코어 2대0(6-4, 6-2)로 꺾고 올 시즌 챌린저대회에서 첫 우승을 신고했다.

2008년 프로에 입문한 제이슨 정이 챌린저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 대회 포함 네 번째다. 2016년 청두챌린저 우승 이후 2017년 장자강, 2018년 샌프란시스코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해마다 한번씩 우승 기록을 세웠다.

제이슨 정은 이날 1세트 4대4에서 두디 셀라 서브게임을 브레이크해 6대4로 앞서며 1세트를 획득했다. 2세트에

서 정교한 서브와 스트로크를 발판으로 5대1로 달아나며 우승을 확정했다. 제이슨 정은 우승상금 7천200달러와 80점의 랭킹 포인트를 확보했다.

제이슨 정은 "훌륭한 대회를 열어 준 광주에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다시 차지해 기쁘다"고 덧붙였다.

복식 결승에서는 남지성(세종시청)·송민규(KDB산업은행) 조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이 대회 복식 정상에 올랐던 남지성·송민규 조는 결승에서 세정병(대만)·크리스토퍼 롱카트(인도네시아) 조에 1대2로 패했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권순우(당진시청·147위)는 단식 본선 4강전에서 두디 셀라에게 0대2로 패해 결승진출이 좌절됐다.

4강 진출 랭킹 포인트 29점을 받은 권순우는 20일 발표되는 세계랭킹에서 135위 안팎에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순우의 역대 최고 랭킹은 이달 초 오른 135위다.

강철성 광주시테니스협회장은 "광주에서 유일하게 국제대회로 치러지는 광주오픈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광주오픈챌린저를 통해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 엘리트선수들에게 동기부여와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대회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 이민영, JLPGA투어 개인 통산 4승 달성

이민영(27·사진)이 JLPGA 호겐노마도구치 레이디스 우승을 차지했다.

이민영은 19일 일본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10언더파 206타를 기록한 이민영은 신지혜(31)와 우에다 모모코(일본)를 1타 차로 제치고 우승 상금 2천160만엔(약 2억3천만원)을 받았다. 이민영이 일본 투어에서 우승한 것은

지난해 3월 다마고치 레이디스 우승을 차지했다. 이민영은 1년 2개월 만이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활약한 이민영은 2017년 2승을 거뒀고 2018년과 올해 1승씩 추가했다. /연합뉴스

## 호심배 아마골프 내일 '티오프'

### 국가대표·상비군 등 상위 랭커 선수 200여명 열전

국내 최고의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열린다.

국가대표 탄생의 발판이 되고 있는 '제17회 호심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가 21일부터 나흘간 화순컨트리클럽에서 펼쳐진다.

광주대가 주최하고 대한골프협회와 광주시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국내 아마추어 4대 메이저대회로 꼽힌다.

호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는 광주대 설립자인 고(故) 호심 김인근 박사가 광주대 무역학과 동문인 최경주

선수의 PGA투어 우승과 골프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003년 창설한 대회다.

국내·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김한별·김태호, 이정은·배선우·김세영·김효주·최나연·박결·최혜진·이정민을 배출하는 등 골프 유망주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와 상비군 등 국내 상위 랭커 선수 200여명이 출전해 남녀부 우승컵을 놓고 뜨거운 경쟁을 펼친다. 대회는 1일 18홀씩 4일간 72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치러진다. /김종민 기자